

大學圖書館大會 記念講演

濟州島 海女

金 榮 敦
(濟州大學副教授)



1

濟州島에는 約 3 萬에 달하는 海女가 있다.
炊事나 保育에 얽매인 채 房이나 지킬 연약한 女子가 그것도 거센 波濤와 싸우며 茫茫大海에 生命을 걸고 作業하는 海女——특히 전설겨운 濟州島의 海女이므로 해서 우선은 누구에게나 好奇의 對象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生活戰士들은 다만 好奇의 對象이거나 神話上的 妖花일 수는 없다.

2

濟州道 發行 1968年度「水産 現況」에 의하면 海女總數 23,979 名中 兼業이 21,811 名이요 專業은 그 10分之 1인 2,158 名에 不過하다. 그리고 1967年度「漁村契實態 調査」(上卷) 契員의 業態別 從事狀況(水産業協同組合 中央會 發行)에서 보면 全國 契員中 專業이 33%, 兼業이 55.9%, 被傭이 11.1%인데 比하여 濟州道の 漁村契員 統計는 總 12,355 名中 專業이 1,914 名으로서 15.5%요 兼業이 10,378 名으로서 84%, 被傭이 63名으로서 0.5%로 濟州의 兼業 比率는 全國에서 가장 높이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大部分의 濟州島 海女들은 (적어도 그 4分之3)은 農業을 비롯한 他業에 만 女人들처럼 꼭 같이 從事하면서 副業으로 海女作業을 擇하고 있는 것이다.

3

또한 濟州에서 海女の 위치는 濟州水産業의 中樞를 이루고 있다. (우선 海女數는 濟州道內 水産業 從事者의 3分之2에 達한다.)

더구나 濟州島 海女들에게는 特殊한 血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점은 Scientific America 1967年 5月號에 發表된 바 延世大 洪 碭基 博士의 「韓國과 日本의 海女」라 題한 論文 가운데서 이미 發表된 바 있다.)

4

너른 바닷 앞을 재언

흔 질 두 질 들어가난
저승 질이 왓닥갓닥

(拙著「濟州島民謠研究」(上) 謠 832)

(譯) 너른 바다 앞을 재어
한 질 두 질 들어가니
저승 질이 오락가락

탕 멩기는 칠성판아
잉영 사는 빙정포야
못홀 일이 요 일이어
모진 광풍 불질 말라

(前掲書 謠 833)

(譯) 타 다니는七星板아
이어 사는 銘旌布야
못할 일이 요 일이베
모진 狂風 불질 말라

七星板을 타 다니며 銘旌布를 이어 사는 이들 戰士들은 너른 바다 앞을 재어 한 질 두 질 들어가면 저승길로 오락가락하는 것이다.

5

濟州島 海女는 언제 어떻게 發祥되었을까?

島內에서 自然 發生한 것인지 島外에서 海女 技術이 輸入되어 들어온 것인지 밝혀지질 않았지만 「韓國水産誌」에는 日本의 海女가 作業次 城山浦에 와서 海産物을 採取한 일이 있는데 이로부터 海女技術이 濟州島에 普及되었다고 記錄되었는 것으로 안다.

6

濟州島 海女の 漁撈方法에 대해서는 李健 著 「濟州風土記」 가운데 약간의 記錄이 있다.

「其中 所賤한 것은 미역이다. 미역을 캐는 女人은 이를 潛女라 부르고 2月 以後부터 5月 以前에 이르기까

지 바다에 들고 미역을 켤 때 卽, 소위 潛女는 赤身露體로 채 바닷가에 遍滿하여 호미를 가져 바다에 뜨고 海底에 倒入하여 미역을 따 나오고 男女가 서로 어울려도 그다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生餵을 採取할 적에도 또한 이와 같다. 採取하여 官家所徵의 役に 응하고 그 殘餘를 典賣하여 衣食에 充當한다.

따라서 生理의 難苦야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더구나 不廉의 官吏가 있어 貪汚의 마음을 내킨다면 卽, 名目을 巧妙히 하여 徹索하기를 數없이 하므로 1年 동안의 所業으로써는 그 役に 응하기가 不足하다는 것이다.

하물며 官門에 輸納의 괴로움, 吏胥의 弄奸 같은 弊는 罔極하니 또한 무엇으로써 衣食의 밀천 되길 바라리오.

이러므로 萬一에 貪官이나 만나면 소위 潛女들은 거지가 되어 빌어 먹으러 돌아다닌다고 한다.]

漁撈 方法에 대하여 간단히 말해 볼까 한다.

우선 밖에 끄나불이 얹힌 「테왁」과 「테왁」밑에는 「망시리」가 달렸음 「중계호미」 및 「비창」 등을 갖추고 눈에는 「눈」(水鏡)을 끼우고 물에 든다.

아마 그 發祥時는 「눈」 없이 潛水했었을 것이다.

한번 潛水하고 나면 「테왁」을 붙잡으면서 「호오이」하고 「숨비질소리」를 낸다. 이것은 過度換氣作用으로서 이 때 體內에 축적돼 있는 炭酸 氣를 내뿜고 汗酸素를 받아 들이는데 그 量이 참 驚嘆할만하다.

물위에 둥둥 떠 있는 「테왁」 밑에 달린 「망시리」 속에 採取物을 넣은 다음, 「테왁」을 가슴에 안고 물 위에서 얼마 동안 休息하다가 다시 潛水作業을 한다.

1回 潛水時間은 普通 1.5分—2分이다. 이렇게 되풀이 潛水하기를 15回—40回 쯤 마친 다음 「ㄱ물질」(바닷가 가까이서의 海女作業)일 경우는 바닷가로, 「벧물질」(배를 타고 나가서 하는 作業)일 경우는 배가 있는 곳으로 헤엄쳐 간다.

바닷가 혹은 배 위에서 모인 海女들은 이미 준비된 燃料(바닷가에서면 흔히 보리질, 조질 따위요, 배위에서면 장작개비 따위)를 지피고 이에 둘러서서 불을 켜다. 불을 켜면 娛樂 혹은 雜談하고 나서는 다시 潛水次 헤엄쳐 나간다.

1日 出漁回數는 겨울철이면 1—2回, 여름철이면 3—4回요, 1回 出漁時間은 30分—90分 사이이다.

이런 漁撈方法에 熟達되려면 상당한 修練이 따를

것은 不問可知일 줄 안다.

7

海女에게는 그 技術의 차이에 따라 上軍, 中軍, 下軍의 階層이 있다.

물론 上軍이란 高度技術의 海女요, 다음이 中軍, 13歲서 18歲 前쯤까지 初步段階의 어리고 未熟한 海女는 下軍이라 한다.

보통 12,3歲부터 시작하여 60 前後면 마치는데, 가끔 살갓이 쭈그러든 80 老婆가 作業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半世紀 前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海女가 나면 그 집안 男子들은 鄉校 出入마저 견제 當했었다지만, 물론 지금은 한갓 傳說로 남겨졌을 뿐이다.

오히려 北濟州郡 舊左面 金寧里 等地에서는 아무리 名門의 閨秀라더라도 海女질 못하면 出嫁하는 데 支障이 있을 정도다.

8

濟州島 海女の 特長은 무엇일까?

이것은 生理, 生態學의面 그 勤勉性 등 多角度로 살필 수 있겠지만 우선 그 前者를 보면,

- 1. 耐寒力이 強하다.
- 2. 潛水時間이 길다.
- 3. 1回 潛水 時間이 日本은 普通 1.5分인데 比하여 濟州島 海女는 勿驚 1.8分 이다.
- 4. 妊娠・月經中에도 作業한다.
- 5. 月平均 15日 내지 20日間 耐寒 勞動力을 가진다.
- 6. 濟州島 海女服은 保溫 作用이 잘 되어 있다.

以外에도 多年間 韓國의 海女를 生態, 生理學의으로 研究해온 延世大 洪福基 博士의 研究 結果에 의하면 海女の 呼吸器 및 體溫變化를 考察한 結果 그 生態가 韓國 海女 特有의 것이라 단정짓고 있는데 그 研究 對象을 釜山 影島에서 주로 택한 점으로 보아 이는 곧 濟州島 海女の 特長이기도 한 것이다.

9

以外 海女들의 收益面, 權益面, 特히 日本, 中國, 本土地方으로 出嫁하는 面 등 얘기는 많지만 우선 이번은 이것으로 그쳐 둔다.